인천주보

제2864호
2025년 1월 26일 | 연중 제3주일 (하느님의 말씀 주일, 해외 원조 주일)
발행 천주교 인천교구 발행인 정신철 편집 천주교 인천교구 홍보실
주소 22573 인천광역시 동구 박문로 1 이메일 hongbo@caincheon.or.kr

우리 본당 가족사진 〈주안1동 예수성명 성당〉, 1967년 설립

연중 제3주일 (하느님의 말씀 주일) 전례

입당송 | 시편 96(95),1.6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존귀와 위엄이 그분 앞에 있고, 권능과 영화가 그분 성소에 있네.

제1독서 | 느헤 8,2-4ㄱ.5-6.8-10

화답송 | 시편 19(18),8.9.10.15(◎ 요한 6,63ㄷ 참조)

◎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제2독서 | 1코린 12,12-30

복음 환호송 | 루카 4,18

◎ **알렐루야.**

○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

복음 | 루카 1,1-4; 4,14-21

영성체송 | 시편 34(33),6 참조

주님께 나아가면 빛을 받으리라.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설 전례

입당송 | 마태 28,20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제1독서 | 민수 6,22-27

화답송 | 시편 90(89),2와 4.5-6.12-13.14와 16(◎ 17ㄱ)

◎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제2독서 | 야고 4,13-15

복음 환호송 | 시편 145(144),2

◎ **알렐루야.**

○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

복음 | 루카 12,35-40

영성체송 | 히브 13,8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시다.

이주의 **녹색순교** 친환경 운전-불필요한 차량 공회전 하지 않기

소리주보 QR

희년의 선포

가끔 어린아이들이 장난기가 발동하여 "왜 신부님이 되셨어요?"라고 물으면 허허 웃는다. 그런데 그 질문에 이제는 제법 노련한 대답을 할 법한데도, 지금까지 좀 그럴싸하게 대답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이렇듯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에다 뜬금없이 "왜?"라는 질문을 붙이면 자꾸만 미궁에 빠지게 마련이다.

"왜 사냐건 / 웃지요…."라는 시구처럼 먹고사는 일에 하도 떠밀려 살다 보니 정작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잊어먹게 된다. 그러다 떡하니 "왜 삽니까?"하고 누가 물어보면 살고 있으면서도 그 답이 막막해진다.

예수님께 질문해 보자. "예수님, 당신은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체할 것 없이 이사야 예언서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히신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루카 4,18-19)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명이자, 목적이다. 그분의 정체성은 한마디로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당신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외아들이자 메시아임을 선언하신다. 그리고 이 세상에 파견되신 이유도 분명히 밝히신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우리 인간들의 위로자요 해방자, 구원자가 되기 위해 오셨음을 강조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양한 속박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에 참으로 큰 위로와 기쁨을 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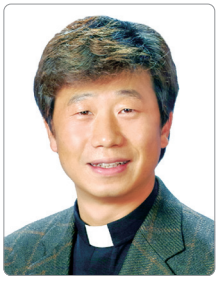
돌아보니 참으로 다양한 사슬에 묶여 살아가는 우리들이다. 무거운 죄의 사슬, 아무리 노력해도 호전되지 않는 마음과 영혼의 병, 그로 인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나 자신이라는 굴레. 이토록 오랜 죄의 노예 생활 속에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를 해방하러 오셨다니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또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이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도 더 이상 그 누군가를 억압하지 않고 속박하지 않으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가 자유로워지고, 그의 인생이 활짝 꽃 피어나고, 그가 훨훨 날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 너도나도 행복할 텐데…. 그렇다. 우리도 가난한 이들을, 눈먼 이들을, 억압받는 이들을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일으키며 살아야겠다. 누구나 가난하지 않으며, 영적으로 눈멀지 않고, 억압받지 않는 삶이 얼마나 좋던가?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올해 희년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희년에, 그 누구도 하느님께 용서받는 위로받는 기회를 빼앗기지 않기 바랍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2025년 정기 희년 선포 칙서에서)

다시 한번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기억하며 서로에게 해방과 자유의 선물을 나누는 2025년 한 해, 희년을 만끽합시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루카 4,21)



김동철 토마스 신부
검단동 본당 주임

믿음의 촛불 밝히기 3_기도 편

미래사목연구소 편집부

지난주에는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을 만나 보았습니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흔들림 없는 굳센 ‘믿음’이었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으로 바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기도에는 정답이 없으니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어느 기도는 옳고, 어느 기도는 그르다’라고 단언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마침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알려 주신 최고의 기도 <주님의 기도>가 있으니, 그 속에서 믿음의 기도 수칙을 몇 가지 찾아볼까 합니다.

구하라, 감사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우리가 곤경에 처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느님의 능력이,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또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드릴 때,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바로 이때 우리 하느님의 이름이 빛나게 됩니다.

“환난의 날에 내 이름을 불러라. 내가 응답하리라.” (호세 2,23 참조)

우리가 어려울 때 불러야 할 이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럼 감사는 언제 해야 할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당장은 고통과 절망만 보여도 그 속에 축복이 숨어 있음을 굳게 믿기에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항상 감사와 찬미를 달고 사는 삶, 그 길에는 좋은 일이 뒤따라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심을 기대하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는 나의 일상, 내가 속한 일터나 모임, 더 나아가 인류의 구원까지, 하느님의 구원 역사가 선한 작용을 하여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속 요셉이 형제들에게 했던 말,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꾸몄지만,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창세 50,20)처럼, 또한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로마 8,28)라는 말씀처럼, 하느님의 선한 이끄심을 믿는 것입니다.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무언가를 청할 때 확실하게 하느님과 사인이 맞으려면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을 주셔도 응답인 줄 모르게 되고, 또 이로 인해 감사를 떼먹게 되기 때문이지요.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 쓰겠다는 확실한 약속과 신용이 바탕이 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은총 속에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곧 하느님의 온전한 빛 속을 걸어가며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저는 인간이고 당신은 하느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일이다. 바로 그 순간 변화가 일어난다.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된다.”

헨리 나웬의 이 말을 통해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묵상해 보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노력이 필요하듯, 하느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으로 바치는 ‘기도’임을, 또한 우리는 기도 없이 살 수 없고, 기도 덕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내 든든한 빽은 하느님

군 전역을 한 지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가지만, 유독 예민하고 소심했던 저는 군대에서 느꼈던 어려움과 고민의 순간이 지금까지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제가 무사히 전역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의 보살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년을 방황의 시기로 보내다가 졸업하고, 결국 원하는 대학 입시에 실패했던 저는 캠퍼스 생활의 즐거움도 제대로 느끼지 못한 채 한 학기 만에 휴학하고 입대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모두 제가 군 생활을 잘 해낼 것이라 얘기했고, 저 또한 잘할 자신이 있었기에 군대에 간다는 것이 두렵거나 겁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대를 한 첫날부터 보충대 입소 전에 부모님과 함께했던 식사가 탈이 났는지 며칠간 복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게다가 계속해서 비까지 추적이며 내렸고, 전역까지 까마득한 날들을 버텨야 한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최전방에 있는 1사단 신병교육대에서 7주간의 신병 교육을 수료해야 했습니다.

1월에 입대했었기 때문에 살을 에는 추위와 싸워야 했고, 몸과 마음도 모두 예민했었기에 툭하면 아프고, 수십 명이 함께해야 하는 생활관 생활 속에서 제대로 잠드는 날은 손에 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날 속에서도 제가 가장 기다렸던 시간은 주말에 찾아오는 종교 시간이었습니다. 견진성사를 받았던 덕분에 저는 성당 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었고, 민간인분들이 가져다주시는 간식을 건빵 주머니에 가득 채워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주간 훈련 시간 이후 찾아오는 종교 활동 시간은 너무나 꿀맛 같았습니다. 하루는 신부님께서 강론 중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빽이 있어 좋은 부대에 가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여러분들에게는 하느님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빽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후 저는 훈련에서 실수하거나 잠이 안 올 때면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걸까요? 저는 집 가까이에 있는 편하기로 유명한 부대로 전입하게 됐습니다. 이제 제 군 생활은 폈다고 안도하던 그때, 오만해지는 저를 하느님께서는 가만히 두지 않으시더군요. 그때에도 남아있던 군 부조리 탓에 한 선임의 꼬임에 넘어가 다른 선임들의 미움을 받게 됐고, 업무에서도 남들이 쉴 때는 쉬지 못하고 골치 아픈 업무를 도맡아야 했습니다. 다시 잠 못 드는 날들이 많아졌고, 몸과 마음도 피폐해져 하루도 쉬지 않고 집에 전화해 하소연했었답니다.

이렇게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겠다고 생각하던 때, 다시 한번 저를 일으켜 세워주신 건 하느님이었습니다. 다행히 소속되어 있던 작은 중대에 천주교 신자인 선임이 한 분 있었기에 그분을 따라 공소에 미사를 드리러 갔고, 이후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 번씩 큰 부대에 미사를 가기도 하고, 나중에는 천주교 군종병도 겸임하며 부활절과 성탄에는 파견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군 생활에 조금씩 안정을 찾고, 상도 여러 번 받고 특급 전사까지 따다 보니 저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전역이라는 기쁨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예민한 몸과 맘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래도 힘들 때마다 나의 가장 든든한 빽 하느님께 기도를 올리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좋은 길을 따라 인생의 길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 신앙 수기자의 요청에 따라 익명으로 게재되었습니다.

청소년사목국 블로그에서 '제30회 바다의 별 축제' 후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젊은이의 희년! 수도자의 희년!

제31회 바다의 별 축제

2/9(주일) 10:00
인천교구청

길

제31회 바다의 별 축제는 지난 12월 24일 교황님께서 선포하신 '희망의 순례자들' 희년(2024.12.24~2026.1.6)을 맞아 "길"을 주제로 젊은이들(청년, 청소년)과 수도자들의 희년 행사로 진행됩니다. 청소년, 청년, 수도자와 함께 서로의 "길"을 알아가는 바·별 축제를 함께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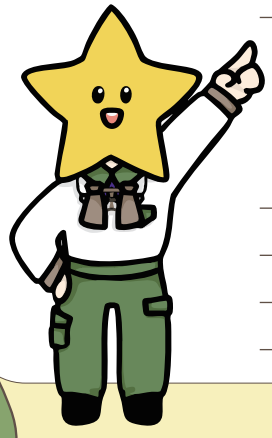
그럼 형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자신을 바로 잡으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서로 뜻을 같이하고 평화롭게 사십시오. 그러면 _

"사랑과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2코린 13,11)

주제 성구 | 신앙의 길을 함께 순례하는 희년을 맞이하여, 서로 어울리고 이끌어주며 늘 우리 곁에 계시는 '임마누엘' 하느님을 느끼기를 바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즐길거리, 볼거리가 가득한 부스와 공연 뿐만 아니라 성경 골든벨, 젊은이와 수도자가 함께하는 신앙 프로그램도 진행되는 제31회 바다의 별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00	부스-체험, 게임, 판매 음식 판매 길거리 공연(플래시몹, 버스킹 등) 제31회 바다의 별 축제 성경 골든벨 예선/본선	인천교구청
13:00	신앙 프로그램	보니파시오 대강당
14:00	미사 준비	
14:30	함께하는 미사 및 시상식	

알려드립니다!

(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2025년 청소년봉사단(이즈밍) 참가자 모집

세대연대 봉사활동 외 청소년 활동 [월 1회]
활동 3~12월(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예정)
장소 가톨릭청소년센터, 갈산종합사회복지관 등
대상 2007~2012년생(중1~고3) 청소년 20명 내외
신청 3/14(금)까지 신청서 이메일 제출(sasa04@yism.or.kr)
※ 신청 안내와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공지 확인

알려드립니다!

2025년 교리교사 양성교육
'슬기로운 교사 생활' 안내

일시 3/8(토), 15(토), 22(토), 29(토), 4/5(토), 12(토) [총 6회]
장소 청소년센터 213호
대상 유·청소년 교리교사(30명)

이 주에 기억해야 할 선종사제

이수일 제르바시오 2016.2.1 선종

| 교구 안내 | 1. 본당 명칭 변경(운서동), 2. 신설 본당 관할구역 획정(운남)

1. 본당 명칭 변경(운서동) 신공항 본당의 명칭을 "운서동 본당"으로 2025.1.15. 자로 변경합니다.

2. 신설 본당 관할구역 획정(운남) 2025년 1월 13일자로 신설된 [운남 본당]의 관할구역을 아래와 같이 획정합니다.

|영종 본당 관할 일부
- 북쪽: 운북동 중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남측
- 서쪽: 운서동과 운남동의 경계 지역과
- 동쪽: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자연대로 교차점에서 자연대로와 하늘대로 교차점을 잇는 도로의 서쪽 지역 (운남동의 우측 하단 하늘대로와 은하수로와 영종대로와 고들재로 안쪽 제외)

|운서동 본당 관할 일부
- 북쪽: 운남동 경계선(금호어울림1차아파트 106동 아래 모서리)과 영종대로 교차점 남측
- 동쪽: 운남동 경계선과 넙디로 교차점에서 큰말로를 지나 해안까지 좌측
- 서쪽: 영종대로와 운서역푸르지오더스카이아파트 아래 도로를 지나 제2경인고속(인천대로)과 만나는 직선의 아래 지역과 운남동 중 제2경인고속(인천대로)의 우측 지역

임시본당주소
22358 인천광역시 중구 백운로 28(영종 본당 내)
032-746-4312 (영종 본당 사무실)

신자세대수 288세대
신자수 697명(남 310명, 여 387명)
소속지구 중·동구 지구

교구청

553차 카나혼인강좌
일시: 3/9(주일) 13:30~18:30 보니파시오 대강당
문의: 032-762-8888 가정생명사목부

교육 | 미사

예수회 수도생활 체험학교-나이 듦, 새로운 소명
지나온 삶을 성찰, 노년을 의미 있고
충만하게 살려는 프로그램 [10일]
일정: 3/17~26, 4/21~30, 5/12~21, 6/9~18
장소: 강원도 홍천 (비용-1백만원)
대상: 60세 이상
문의: 010-7451-9707

노틀담 첫영성체 교리서 일일연수
일시: 2/1(토), 3(월) 서울 노틀담 교육관
다음카페 「노틀담 첫영성체」 검색
문의: 010-3829-7667

『신난다 첫영성체』교리-교사 연수
일시: 2/8(토), 9(주일) 13:00~18:00
장소: 생활성서사(수유역 근처) / 회비: 2만원
문의: 010-7273-5983

예수수도회 영성센터(서울) 프로그램
·영신수련 [2박 3일] 피정: 2/28~3/2, 3/21~23
·영신수련 [8일] 피정: 3/18(화)~3/27(목)
장소: 예수수도회 오류동(1, 7호선 온수역 10분 거리)
문의: 010-6890-7223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피정 및 교육
·이냐시오 영신수련: 2/21(금)~25(화) [4박 5일]
·예수마음기도: 2/7(금)~9(주일) [2박 3일]
·사계절 하루피정: '봄' 2/22(토), '숨' 2/28(금)
장소: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문의: 010-9099-2337, www.jesumaum.org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1박 2일] 2/14(금)~15(토), 3/8(토)~9(주일)
[3박 4일] 2/17(월)~21(금)
[4박 5일] 2/26(수)~3/1(토)
[8박 9일] 2/3(월)~11(화) 신학생, 일반
3/13(목)~21(금)
[40일] 4/21(월)~5/30(금)
장소: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
문의: 010-4906-5722, 031-953-6932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쉼과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2025년 피정접수 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한라산 눈꽃산행: 2/7~9, 21~23, 25~27
일시: 3/1~3, 8~10, 13~16(추자도 포함),
3/18~20, 23~26(추), 3/29~31,
4/1~3, 5/4~6
문의: 064-796-4182,
02-773-1455(제주자연피정)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성경완독: 2/14(금)~22(토), 3/14(금)~22(토)
장소: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문의: 010-3340-0201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 신부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순례와
성무일도,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한라산 눈꽃산행 포함: 2/8~10, 14~16, 22~24
성지순례(추자도 포함): 3/1~4, 9~12, 4/2~4
생태순례: 3/17~19, 22~24, 28~30, 4/7~9
문의: 064-756-6009,
02-773-1463(제주자연피정)

성모솔숲 무료 치유대(對)피정
값없이 먹고 자고 원 없이 기도하자
기간: 2/7~9, 3/7~9, 4/11~13
매월 둘째 주(금~주일) [2박 3일]
문의: 010-3209-3955(문자 접수)

25년 대희년 성모님께 드리는 33일 봉헌
지향: 나라, 교회, 가정, 나의 성화를 위하여
매일 [오전] 묵주기도 20단,
[오후] 봉헌 기도(강의, 기도, 파견미사)
일시: 1/22~26/1/5 [총 10차]
[1차] 1/22~2/23, 감사피정 2/24
장소: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61-1 지혜의 샘
문의: 010-3248-9705

이수일(제르바시오)신부님 선종 9주기 미사
일시: 2/1(토) 10:00 연도, 11:00 미사
장소: 백석 성직자 묘지
문의: 010-6310-9843

글라렛선교수도회 인천후원회 월례미사
일시: 2/10(월) 14:00
장소: 국제성모병원 장례예식부 B2
문의: 02-743-7026, 010-7764-6031

민들레지역복지 미사
후원자, 봉사자, 지역민을 위한 미사
일시: 매주(화) 14:00
장소: 성모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강당
(인천 서구 탁옥로105 3층 301호)
문의: 032-568-8399, 032-569-6797

가톨릭문화원 상설 음악피정미사, 무료 콘서트
일시: 매주(주일, 목) 14:00 가톨릭문화원 아트센터
(김포시 하성면 월하로 970-18)
버스운행: 13:30 장기역 3번 출구
버스정류장 옆 공영주차장
문의: 1577-3217

모 집 | 일 반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위치: 인천 서구 드림로 472 천주교 인천교구 묘원
(2025년 상반기 준공 예정)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접수
서류: 교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기간: 60년(30년 봉안 후 30년 연장 가능)
봉헌금: 4백만원, 5백만원
문의: 032-765-7251
http://haneul.caincheon.or.kr

이승훈 베드로 성지 '기도의 벽', '추모의 벽' 신청
성지 성전에 지향자 성명 각인 1인당-1백만원
10년 동안 매달 1회 미사봉헌
문의: 032-765-6916 인천교구 성지위원회

(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사무처 직원 채용
분야: 청소년사업 및 행정 보조
접수: 1/31(금)까지 이메일 접수
(sagy02@yism.or.kr)
제출서류: 재단 지원양식
-홈페이지(yism.or.kr) 참고
문의: 032-766-1318

교구청 사제관 주방직원 모집
제출서류: 이력서, 교적증명서, 본당사제 추천서
마감: 2/18(화)
제출처: 032-765-6961 사무처

어린이, 청소년 환경탐사단 모집
자연 속에서 함께 놀며, 배우며,
환경을 지키는 어린이, 청소년 환경탐사단
활동 기간: 3~12월, 매월 셋째 주(주일)
참가비: 20만원
문의: 032-777-9494 가톨릭환경연대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 전문병원, 중독중점
입원 및 외래 통원치료(도박, 인터넷 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일시: (월~금) 9:00~17:00
장소: 백석역(3호선)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글라렛선교수도회 심리상담
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가족관계,
직장 및 학교부적응, 이주민 자녀 진로상담
대상: 개인, 부부, 가족, 청소년
장소: 부천시 심곡본동 608-7
상담료: 1회 1만원
문의: 010-7794-6031

솔샘나우리상담센터(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치료놀이,
언어치료, 감각통합치료 [국가바우처 사용 가능]
대상: 아동 및 청소년
문의: 032-872-2731, www.solsam.or.kr

2025 가톨릭시니어합창단 단원 모집
모집기간: 1/1~31 (55세 이상 누구나)
연습: 매주(금) 15:00
문의: 010-5245-2848 심준보 베드로

성심(야간)중학교 40기 신입생 모집
중학과정 2년제, 나이제한 없음, 학비 교재 무료
수업: (월~금) 19:00~22:00
예비소집: 2/17(월)
장소: 부평4동 성당 교육관 지하
문의: 010-8398-9866

25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신학과정
가톨릭 신학 전반 26과목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원서접수: 2/14(금)까지
문의: 02-745-8339, http://ci.catholic.ac.kr

25년 인천교리신학원 신입생 모집
교수진 신부들의 주 3일 강의,
개인 성화와 교회 봉사 준비 과정
정원: 정규[2년] 30명, 심화[1년] 25명
인천교리신학원 홈페이지 참조
입학상담: 032-830-7137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봄학기 모집
접수: 2/3(월)~21(금)까지 [3개월 수업(12~2월)]
대상: 연령 무관, 초급~최고급 과정까지
과목: 오르간, 피아노, 반주, 성악, 합창지휘, 작곡, CCM,
관악기, 현악기, 바로크악기, 국악/앙상블(그레고리오성가,
성악, 플루트, 현악, 목관, 리코더, 클래식기타) 등
장소: 최양업홀(전철 1·4호선 서울역, 2·5호선 충정로역)
문의: 02-393-2213~5, http://www.casm.co.kr

상장례지도사(봉사자, 국가자격취득) 교육생 모집
·봉사자: 3/8~5/17 매주(토) 9:00~18:00 [10주]
·자격증반: 3/8~11/1 매주(토) 9:00~18:00 (300시간)
장소: 의정부교구청 내 신앙교육원, 대회의실
인원: 봉사자반 50명, 자격증반 30명
참조: http//cafe.daum.net
문의: 031-874-6272

젊은이 해외(인도네시아) 선교체험
일시: 6/25~7/2 [7박 8일] 인도네시아 메단
대상: 만 18~39세(미혼 신자 남·녀)
주최: 아씨시의 프란치스코 선교 수녀회
문의: 010-5715-1702(젊은이 사도직)

예수성심 강화·김포 친교회 회원 모집
대상: 65세 이하 교우
문의: 010-5245-9300

순 례 | 기 타

성심 해외 성지순례
성모발현 성지순례: 베트남 라방, 짝께우 [5일]
일시: 3/31 출발(대한항공), 김현우 바오로 신부 동행
문의: 010-5909-5997

분도출판사 "간 김에 순례" 출간 기념 순례
도나우, 알프스 수도원 및 성지
일시: 6/17(화)~28(토)
인원: 20~26명
지도: 분도출판사 김성찬 신부
분도출판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문의: 010-5577-3605

가고시마 교구 일본 성지순례 [3박 4일]
도쿄, 오사카, 아키타, 북해도, 나가사키 120만원
문의: 010-3645-9028

가톨릭 해외 성지순례
3/17 유럽 4개국 성모 발현지 [12일]
3/18 산티아고 도보 순례 118km [12일]
4/22, 5/13 이탈리아 일주 [11일] 415만원
5/3 동유럽 발칸3개국 메주고리예 [15일]
5/19 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 브라질 [13일]
6/5 세계 울뜨레야 로마 대회 참가단 [12일]
문의: 010-5235-3533 가톨릭회관 619호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2/10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0만원
2/17 베트남 다낭 성모성지 [5일] 150만원
3/14 이태리 수도원 및 명소 탐방 [12일] 560만원
3/28 사도 바오로 발자취(터키, 그리스)
[12일] 480만원
5/6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 [12일] 560만원
문의: 02-722-8366

가톨릭신문 해외 성지순례
3/7 희년 이탈리아(대한항공) [12일] 455만원
4/1 산티아고 도보순례 [12일] 499만원
4/5 희년 이탈리아(독일항공) [12일] 435만원
문의: 02-2281-9070, www.cttour.org

이오소피아 마카오, 홍콩 성지순례
4/24(목)~27(주일) 대한항공
문의: 032-666-9385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연수원) 운영
대천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피정, 매일미사,
대전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인근 성지: 갈매못 순교성지, 서짓골 성지,
청양 다락골 성지
인터넷 검색창에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
https://yonaresort.modoo.at/
문의: 041-934-7758